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野, 법사위원장 자리두고 '줄다리기' 원 구성 협상은 난항

여야, 법사위원장 필요성 강조  
박의장, 3차 추경처리 의지 강력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것',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정부·여당 견제'라는 이유로 각각 법사위원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다투기도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처리 차원에서 여야 간 협상은 재개됐다.

원 구성 협상 재개로 통합당은 민주당에 '21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각각 2년씩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가며 맡자'고 제안했다. 당초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도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의 경우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여당 몫'이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모습이다.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양측 제안이 서로에게 거부당한 상황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5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사실상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26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안 마련이 결

렬됐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통합당 측 제안을 거부했다. 법사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집권 여당이 갖는 게 맞다"며 "(우리는 통합당에) 경제 분야에서 예산결산특별위, 국토위, 정무위 등 알짜를 포함해 11대 7을 제안했는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통합당도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의장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에 최후통첩했다. 여야 협상과 별개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은) 29일 본회의를 연다. 7월3일이 회기 마지막 날이니 그때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은 자체적으로 추경안 심사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3차 추경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 만큼 여야에 원 구성 협상안 마련을 압박한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29일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친 뒤 3차 추경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3차 추경을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대면·원격학습 융합 '스위치 러닝' 도입

근로복지공단, 게임적 요소 등 접목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대면교육에 원격학습활동이 융합된 스위칭 러닝을 기획·설계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조화된 새로운 교육방법을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스위칭러닝은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토의 및 실습 과정을 원격 스트리밍 플랫폼에 접목시킴으로써 집합교육에서 학습자 간 비대면을 유지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교육방식이다.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필요에 따라 전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교육 집중도를 저하시키지 않고, 온라인 게임적 요소까지 접목해 학습자 흥미를 유발한다.

스위칭러닝방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20년 계층별 리더십 및 공통역량 강화교육'에 처음 도입돼 6월~10월까지 총 17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1인 1책상과 일방향 작성, 20명 미만 분반 진행, 1일 2회 발열 체크, 손세정제와 마스크 비치 등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 코트라, 조선해양기자재 中 中 中 수출판로 개척

부산에서 중소기업 간담회  
기업 애로사항 청취, 사업안내 등

KOTRA(코트라)가 26일 부산에서 '조선해양기자재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코트라 서비스를 이용한 부산·경남 지역 10개사가 참석했다.

코트라는 간담회에서 수출판로 개척과 부품·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사업을 안내했다. 코트라는 산업별 온라인상품과 등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바이어를 발굴하도록 돕고 있다.

최근 코트라는 '산업 코디네이터' 사업도 개발해 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산업 코디네이터는 해외무역관 근무 경력자,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직



권평오 코트라 사장(오른쪽 세번째)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접 나서 산업트렌드와 상품특성에 맞는 수출마케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장조사부터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 진출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코트라 산업 코디네이터는 조선 분야 뿐 아니라 디지털무역, 소비재, 스마트팜 등 19개 산업 전반이 서비스 대상이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조선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고효율 선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고객별 맞춤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남해 해양레저 거점 '진해명동 마린항만' 착공

해수부, 888억 투입 2024년 조성  
300척 레저선박 접안시설 등 개발

남해안의 해양레저스포츠의 거점이 될 진해명동 마린항만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다. 2024년까지 888억원이 투입, 300척 규모 레저선박 접안시설과 숙박 시설 등이 개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끔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창원시 명동 해양공원에서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해명동 마린항만 개발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레저,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마린항만 조성을 위해 '제1차 마린항만 기본계획(2010~2019)'에 따라 2013년부터 창원 진해명동을 비롯해 울진 후포, 안산 방아머리, 여수 웅천, 부산 해운대, 당진 왜목 등 거점형 마린항만 6개소를 지정해 조성하고 있다.



진해명동 마린항만 시설조감도. /해수부

첫 착공한 울진 후포 마린항만은 2019년 방파제 및 부지조성 등 1단계 공사 완료 후 2단계 건축공사 사업을 진행 중이고, 창원 진해명동 마린항만은 2016년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승인, 사업자 시행자 지정, 마린항만구역 지정, 실시 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착공하게 됐다. 창원 진해명동 마린항만은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888억원을 투입해 300척 규모의 레저선박 접안시설, 숙박 등 편의시설과 클럽 하우스 등 마린항만 종합시설을 갖춘 남해안권의 거점형 마린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다양한 해양스포츠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요트도 접안할 수 있는 100피트 규모 선석을 확보하고 외국 레저선박 등을 유치해 해양관광과 선박 수리 등 마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남해안 최고의 마린항만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으로 30년간 1조 7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6839억 원의 부가가치창출 효과, 7948명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

# 생활방역지침 준수 '안심식당' 96곳

농식품부-한식진흥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안심식당 모델 개발을 위한 사례 발굴을 위해 생활방역지침 등을 잘 준수하는 한식당 96개소를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선정된 식당은 종업원 마스크 착용, 위생적 수저관리, 개인 식기 제공, 손소독제 비치 등 음식점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충족하는 곳이다.

이번 우수 한식당 선정은 외식업계와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외식단체(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주관으로 선정하는 방식과 온라인 국민 추천을 받아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해 진행했다.

외식단체들은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거쳐 49개소를, 온라인 국민 추천에서는 3주 모집기간 중 197건

의 한식당이 접수됐고, 현장심사를 거쳐 47개소가 선정됐다. 최종 선발된 한식당 추천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5만원)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최종 선정된 한식당에는 체온계, 위생마스크, 손 소독제, 살균제, 수저받침 등 50만원 상당 방역·위생 물품이 지원된다. 또 선정된 한식당 중 유형별 20개소를 다시 뽑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식사문화개선과 생활방역 실천을 위한 우수 모델을 정립하고 다른 외식업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이번에 발굴된 우수 사례를 종합 분석해 다양한 유형의 실천 모델을 제시해 외식업계가 식사문화개선에 동참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외식업계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식사문화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 기자

# 농산물 대만수출 확대 농식품부, 검역요건 완화

우리 농산물의 대만 수출 검역요건이 완화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월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의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수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대만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농산물에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가 적용돼 왔다.

검역본부는 작년부터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전 컨테이너 번호 확인으로 수출 검역 지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만 측과 검역요건 완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대만 측과 공감대를 이뤄 사과·배·복숭아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의무적용을 면제하는 검역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용수 기자